방북 보고

녹록하지 않았던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유진벨의 2016 가을 정기 방북 일정은 예정보다 한 달이 지연되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방북 대표단은 11월 22일이 되어서야 북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3주 동안 대표단원들은 헌신적인 북한 보건성 직원들과 함께 매서운 겨울 추위에 맞서며, 북한 서쪽 전역을 아우르는 총 12개 치료센터를 모두 방문하였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현지 의료진들도 가세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환자들로부터 객담 수거, 약국 및 실험실 재고 조사, 약품 및 영양식 전달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두 현지 의료진들이 앞으로 6개월간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난 2008년, 첫 19명의 환자를 등록하며 시작되었던 유진벨 다제내성결핵 치료 프로그램은 한 해 신규등록환자가 1,000명을 돌파했던 2015년까지 줄곧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올 해에는 방북 일정이 정해진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신규환자 수의 절반 밖에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북한 내 다제내성결핵 신규 발병수가 매년 약 4,000 – 5,000명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간 신규환자 등록수가 4,000명에 도달하지 않는 한, 북한의 총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진벨은 다제내성결핵으로 고통 받는 북한의 모든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환자들과 현지 의료진뿐만 아니라, 북한 의료 당국에서도 유진벨 프로그램에 대해 갈수록 더 큰 열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북 때,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저희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기적인 방북 일정'을 앞으로 꼭 보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긴장상태가 심화될 수 있는 민감한 시기를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4월과 10월 중순이 아닌 5월과 11월 첫 주에 방북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유진벨 사업에 대한 관심은 다른 곳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도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이라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저희 사업이 모든 종류의 대북 관련 제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녘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저희로 하여금 이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북녘 주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